

옛날옛적 남선고을 남선비와 여산고을 여산부인이 살아실 때, 집안은 간곤(艱困)하고 아들은 나는 게 일곱성제[七兄弟] 솟아나옵데다.¹⁾

흐를날은²⁾ 여산부인이 말을 흐ಡ,

“우리가 영 허영은³⁾ 주식(子息)덜토 하지고⁴⁾ 살 수가 엇이니 무곡장소[貿穀商]나 허여보기 어쩝네까?”

“어서 걸랑 그리 흐라.”

남선비는 전베독선[全船獨船] 잡아놓고, 처가속(妻家屬) 어린 주식 이별(離別)허여 남선고을을 떠나 브름[風] 부는 낭, 절 이는 낭⁵⁾ 가는 게 오동나라 오동고을 들어가옵데다.

오동나라 오동고을 노일제데귀일의 뜰이 남선고을 남선비가 전베독선 잡아아전⁶⁾ 무국장소 오랐젠⁷⁾ 소식 듣고, 흐를날은 오동나라 성창(船艙) 乞[邊]일 가고 보니 남선비가 전베독선 타고 와시난⁸⁾ 엇인 언강⁹⁾ 스뭇 내멍¹⁰⁾.

“남선비야, 남선비야, 옵서 우리 심심소일(--消日)로 바둑 장기(將棋)나 뛰멍¹¹⁾ 노념놀이¹²⁾ 허여보게.”¹³⁾

“어서 걸랑 그럽소서.”

남선비가 바둑 장길 버려놓고 영 뛰곡¹⁴⁾ 저영¹⁵⁾ 뛰곡 놀단 보난 전베독선은 다 풀아먹고, 노일제데귀일의 뜰광¹⁶⁾ 남돌처귀¹⁷⁾ 거적문 대축낭¹⁸⁾ 웨지동[單柱] 비조리초막에¹⁹⁾ 앗아 체죽[糠粥] 단지 옆의 차고,

“이 개 저 개 주어 저개.”²⁰⁾

드리멍²¹⁾ 숙숙²²⁾ 졸암십데다.²³⁾

그때예 여산부인은 연삼년(連三年)을 지드려도²⁴⁾ 남선비님이 종무소식 허여지난 아들 일곱성젤

1) 솟아나옵데다 : 태어나옵디다의 뜻.

2) 흐를날은 : 하룻날은.

3) 영 허영은 : 이렇게 해서는.

4) 하지고 : 많아지고.

5) 절 이는 낭 : 물결 일어나는 양.

6) 잡아아전 : 잡아서.

7) 오랐Zen : 왔다는.

8) 와시난 : 왔으니까.

9) 엇인 언강 : 없는 아양.

10) 스뭇 내멍 : 사뭇 내면서.

11) 뛰멍 : 두면서.

12) 노념놀이 : 놀음놀이.

13) 허여보게 : ‘옵서－흐게’의 청유형 구문형.

14) 영 뛰곡 : 이리 두고.

15) 저영 : 저리.

16) 뜰광 : 딸과.

17) 남돌처귀 : 나무돌찌귀.

18) 대축낭 : 수수깡.

19) 비조리초막 : 아주 작은 초막.

20) 개 : 개를 좋는 소리.

21) 드리멍 : 쫓으며.

22) 숙숙 : 앉아서. 머리를 끄떡끄떡 하면서 조는 모양.

23) 졸암십데다 : 졸고 있읍디다.

불러 말을 헤드.

“느네²⁵⁾ 아바지가 무국장술 갔는디. 여테 지금 아니오는 걸 보난 피라곡절(必有曲折) 이상²⁶⁾ 다. 굴미굴산²⁷⁾ 올라강 곧은 낭[木]을 비여당 전베독선(全船獨船) 무어주민²⁸⁾ 느네 아바지나 쫓아오마.”

일곱성제가 어머님 곳은 대로²⁹⁾ 굴미굴산 올라간 곳은 낭[木] 비여단 전베독선 무어 노난. 여산부인도 일곱성젤 이별³⁰⁾하고 남선고을 하직(下直)하여 부름[風] 부는 냥, 절[波] 이는 냥 가는 것이 오동나라 오동고을 베를 부칩니다.

오동나라 오동고을 들어가난 지장밧[黍田]디 새 드리는³¹⁾ 아이덜이.

“이 새 저 새 너미³²⁾ 욕은 체 말라.³³⁾ 남선비 욕은 깐에도 노일제대귀일의 뚤 호탕(豪宕)에 들언 전베독선 다 풀아먹고 비조리초막에 앗안 체죽[糠粥] 단지 옆의 놓고 이 개 저 개 주어 저 개 드렴저.³⁴⁾ 이 새 저 새 주어 저 새!”³⁵⁾

여산부인이 그 말을 듣고 지장밧디 새 드리는 아이신디³⁶⁾ 말을 헤드.

“굿사³⁷⁾ 느네덜 골은 말이 무슨 말고? 굿사 골은 말 일러주민 영추(英綃)댕기나 허여주마.”

“아무 말도 아니 골았수다.”

“기영 말양³⁸⁾ 헤 쓸³⁹⁾ 골아 도라.”⁴⁰⁾

“굿산 이 새 저 새 너미 욕은 체 말라. 남선비 욕은 깐에도 노일의 뚤 훌림에⁴¹⁾ 들언 전베독선 다 풀아 먹고 체죽 단지 옆의 차 앗안 이 개 저 개 주어 저 개 드렴서라⁴²⁾ 일렀수다.”

“설운 아기야, 남선비 어디 살암시니?⁴³⁾ 남선비 신 딜⁴⁴⁾ ?리쳐 도라.”⁴⁵⁾

“요 제[嶺] 넘엉 갑서.⁴⁶⁾ 저 제 넘엉 갑서. 요 제 넘고 저 제 넘엉 가당 보민 거적문에 남돌쳐 귀 돈 비조리초막에 살암수다.”

여산부인은 지장밧디 새 드리는 아이신디 영추댕기 돌아줘 두고, 요 제 넘어 저 제 넘어 가단 보난 남선비 사는 집의 근당(近當) 헤옵데다.

여산부인 들어가멍 말을 헤드.

“질⁴⁷⁾ 넘어가는 사름 날이 문 정그라져⁴⁸⁾ 소님[客]이나 멋혀주기⁴⁹⁾ 어쩝네까?”

24) 지드려도 : 기다려도.

25) 느네 : 너희.

26) 굴미굴산 : 매우 깊은 산의 뜻으로 씀.

27) 무어주민 : 지어주면.

28) 곳은 대로 : 말하는 대로.

29) 드리는 : 쫓는.

30) 너미 : 너무.

31) 욕은 체 말라 : 약은 체 말아라.

32) 드렴저 : 쫓고 있다.

33) 이 새 저 새 주어 저 새 : 새 쫓는 소리.

34) 아이신디 : 아이에게.

35) 굿사 : 방금.

36) 기영 말양 : 그리 알아서.

37) 헤 쓸 : 조금.

38) 도라 : 말해 달라.

39) 훌림 : 호림.

40) 드렴서라 : 쫓고 있더라.

41) 살암시니 : 살고 있느냐.

42) 신 딜 : 있는 데를.

43) ?리쳐 도라 : 가리켜 달라.

44) 넘엉 갑서 : 넘어서 가십시오.

남선비 말을 헤ಡ.

“아이고, 설운 부인님아. 우리 집원 집안도 좁고 소님 멎일 디⁴⁸⁾ 없습네다.”

“그게 무슨 말입네까? 사름이 난 디 나민⁴⁹⁾ 집을 정⁵⁰⁾ 뎅깁네까? 정짓간이라도⁵¹⁾ 빌려줍서.”

남선비가 허락⁵²⁾난, 여산부인이 정짓간을 들어가고 솟을⁵³⁾ 울안 보니,⁵³⁾ 체죽은 부짝 눌어시난 솟을 초편(初番) 이편 제삼편(第三番)을 다까놓고 나주영산(羅州靈山) 은엉미쌀(銀玉米)을 놔네 저녁밥[夕飯]을 지어아전⁵⁴⁾ 남선비아필 가져가난, 남선비가 챙술을 들르멍⁵⁵⁾ 눈물을 다르륵기⁵⁶⁾ 흘립데다.

“설운 부인님아. 이게 어떤 일이 뒷집네까? 나도 옛날에는 이런 밥 먹어났수다. 나도 본래(本來)는 남선고을 남선비가 뒷집네다. 무국(貿穀) 장술⁵⁷⁾ 오랐단⁵⁸⁾ 노일제데귀일이 뚫 훌림에 들언 전베독선(全船獨船) 다 풀아 먹고 죽도 살도⁵⁹⁾ 못허연 이 지경이 뒷집이 뒷집수다.”

여산부인이 말을 헤ಡ.

“설운 남선비님아. 날 몰르쿠가?⁶⁰⁾ 내 여산부인이 뒷집네다.”

남선비가 여산부인 홀목을⁶¹⁾ 비여잡고⁶²⁾ 만단정화(萬端情懷)를 일럼더니 노일제데귀일의 뚫 어디 간 놈의 품팔이 풀안 치멧각에⁶³⁾ 체[糠] 혼 솔빡⁶⁴⁾ 싸 앗어네⁶⁵⁾ 먼 올레로⁶⁶⁾ 들어사멍,

“이 놈 저 놈 죽일 놈아. 난 어디 강 죽듯 살듯⁶⁷⁾ 체 혼 솔박이라도 빌어당 죽을 쑤엉 베 불리 멱여 노민 질 넘어가는 년덜 멋혀놓고 만단정화(萬端情懷)만 일럼구나.”⁶⁸⁾

후욕(詬辱)호명 들어오난, 남선비가 말을 헤ಡ.

“설운 부인님아. 기영⁶⁹⁾ 후욕(詬辱) 말양 어서 들어왕 보라.⁷⁰⁾ 어서 들어오민 모든 말을 저절리⁷¹⁾ 일르리라.”

노일제데귀일의 뚫이 방으로 들어가니 남선비 말을 헤ಡ.

45) 질 : 길.

46) 문 정그라져 : 다 저물어서.

47) 멋혀주기 : 멈춰주기. 유숙시켜 주기.

48) 멎일 디 : 유숙시킬 데.

49) 난 디 나민 : 나간 데 나가면. 곧 외출하면.

50) 정 : 젓서(負).

51) 정짓간이라도 : 부엌이라도.

52) 솟을 : 솟을.

53) 울안 보니 : 열고 보니.

54) 지어아전 : 지어서. 지어 가지고.

55) 들르멍 : 들면서.

56) 다르륵기 : 둉글고 작은 물건이 굴러 떨어지는 모양이나 소리.

57) 장술 : 장사를.

58) 오랐단 : 왔다가.

59) 죽도 살도 : 죽지도 살지도.

60) 몰르쿠가 : 모르겠습니까.

61) 홀목을 : 팔목을.

62) 비여잡고 : 부여잡고.

63) 치멧각에 : 치맛자락에.

64) 솔빡 : 한 되 들이만큼 하게 나무를 파서 만든 동그스름한 그릇.

65) 앗어네 : 싸 가져서. 싸서.

66) 올레 : 거짓길에서 집으로 드나드는 골목길.

67) 죽듯 살듯 : 죽을 듯 살 듯. 갖은 곤란을 무릅쓰는 모양.

68) 일럼구나 : 이르고 있구나(謂).

69) 기영 : 그리.

70) 보라 : 들어와 보아라.

71) 저절리 : 저절로.

“여산고을 큰부인이 나를 찾아왔구나.”

그 말을 들은 노일제데귀일의 뜰,

“아이고, 설운 성님아, 오유월(五六月) 한 더위에 우릴 쫓아오저 훈 게 언매나⁷²⁾ 고생을 흡데가? 옵서⁷³⁾ 우리 시원이 몸모욕(—沐浴)이나 허영 오랑⁷⁴⁾ 저녁밥[夕飯]이나 지어 먹어 놀기 어쩝네까?”

총말로 안 여산부인은,

“어서 걸랑 그리 흐자.”

주천강(酒泉江) 연못[蓮池]디 몸모욕 ˘찌 가난 노일제데귀일의 뜰이,

“설운 성님아, 옷을 벗읍서. 등에 물이나 놔 드리저.”

여산부인은 웃웃을 벗언 굽으나네⁷⁵⁾ 물 훈 좀⁷⁶⁾ 쥬여놔⁷⁷⁾ 미는 척 흐단 앞데레⁷⁸⁾ 자락⁷⁹⁾ 경밀어부니,⁸⁰⁾ 여산부인 감태(甘苔) ˘뜬 머리 만제중⁸¹⁾ 허터놓고⁸²⁾ 주천강 연못디 수중영장(水中靈葬) 뒤옵네다.

노일제데귀일의 뜰, 여산부인 입은 입성[衣服] 벗겨 입고 남선비 앞의⁸³⁾ 들어가서,

“설운 낭군(郎君)님아, 노일제데귀일의 뜰 행실(行實)이 괘씸흐 곤테⁸⁴⁾ 주청강 연못디 간 죽여두고 오랐수다.”⁸⁵⁾

남선비가,

“하하, 그 년 잘 죽였저. 나 원수 가팠구나. 글라,⁸⁶⁾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게.”

전베독선[全船獨船] 잡아아전 오동나라를 하직(下直)해야 남선고을 물무를[水平線]을 근당흐니, 남선비 아들 일곱성제[七兄弟]가 아바님 어머님 온댄⁸⁷⁾ 성창?[船艙邊]의 마줌⁸⁸⁾ 나와, 부모님 오시는 디 무스걸로⁸⁹⁾ 두릴 노리.⁹⁰⁾ 큰아들[長男] 망근(網巾) 벗어 두릴 놓고, 셋아들[次男] 두루막⁹¹⁾ 벗어 두릴 놓고, 쇠챙 아들[三男] 적삼 벗어 두릴 놓고, 낫채 아들[四男] 중의⁹²⁾ 벗어 두릴 놓고, 다섯챙 아들[五男] 행경(行纏) 벗어 두릴 놓고, 으송챙 아들[六男] 보선⁹³⁾ 벗어 두릴 놓고, 똑똑흐고 역력(歷歷)한 녹디셍인 칼쏜두릴⁹⁴⁾ 노읍데다.

72) 언매나 : 얼마나.

73) 옵서 : 오십시오. '옵서-흐게'의 청유형 구문형.

74) 허영 오랑 : 하고 와서.

75) 굽으나네 : 굽으니.

76) 훈 좀 : 한 좀.

77) 쥬여놔 : 쥐어 놓아.

78) 앞데레 : 앞으로.

79) 자락 : 힘차게 떠밀거나 때리는 모양.

80) 경밀어부니 : 떠밀어 버리니.

81) 만제중 : 미상.

82) 허터놓고 : 흘어 놓고.

83) 앞의 : -에게. -한테.

84) 괘씸흐 곤테 : 괘씸하길래.

85) 오랐수다 : 왔습니다.

86) 글라 : 걸어라. 가자의 뜻. '급서. 걸읍서'의 비칭. 행동을 같이 하기를 청유할 때 '글라·급서·걸읍서-흐게'의 구문형으로 씀.

87) 온댄 : 온다고.

88) 마줌 : 마중.

89) 무스걸로 : 무엇으로.

90) 두릴 노리 : 다리(橋)를 놓으랴.

91) 두루막 : 두루마기.

92) 중의 : 고의(袴衣).

93) 보선 : 버선.

94) 칼쏜두릴 : 칼날이 위로 향하게 세워진 다리.

설운 성님덜이 말을 헤워.

“어떤 일로 부모님 오시는 디 칼쏜드릴 놈시니?”⁹⁵⁾

“설운 성님아, 아바님은 우리 아바님이로고나마는 어머님은 우리 어머님 아니 답수다.”⁹⁶⁾

“어떻허연 알아질티?”⁹⁷⁾

“어머님이 우리 어머님이 아닌 중⁹⁸⁾ 긴 중⁹⁹⁾ 알커건¹⁰⁰⁾ 베 알에 누령 집을 쫓아가는 거 보민
알 도례(道理) 실 거우다.”

아닐쎄,¹⁰¹⁾ 부모님이 성창[?]의 누련 부모 주식간에 고생(苦生)훈 만단정화(萬端情懷) 일르고,

“어서 아바님 어머님아, 집으로 걸읍소서.”

집을 쫓아가는 것이 노일제데귀일의 뜰 이레¹⁰²⁾ 주왁 저레 주왁,¹⁰³⁾ 이 골목데레도¹⁰⁴⁾ 들어사
고 저 골목데레도 들어사젠 흐난 일곱성젠,

“우리 어머님이 아니로고나.”

적실(適實)이 알고, 집의 들어간 밥상을 쟁려 놓는 걸 보난, 아바님아피 가단¹⁰⁵⁾ 상(床)은 주식
(子息)신디¹⁰⁶⁾ 가곡, 주식이 받단 상은 아바님 아피 가곡 허여 가난, 더군다나 일곱성제,

“우리 어머님이 아니로고나” 흐옵데다.

그날부띠 일곱성젠 “우리 어머님은 어느 고을 가아신고.”¹⁰⁷⁾

어머님 그려¹⁰⁸⁾ 눈물로 세월(歲月)을 보낼 때, 흐를날은 일곱성제[七兄弟]가 삼도전거리예¹⁰⁹⁾
나간 어머님 생각흐명 비새[?]찌 우는디, 노일제데귀일의 뜰, 삽시(霎時)에 베[腹] 아픈 신벵(身病)
을 일루와¹¹⁰⁾ 구들 뉘 구석을 펑펑 돌멍,

“아야 베여, 아야 베여.”

죽을 수경(死境) 웨여간다.

남선고을 남선비 혼겁을 집어먹고,

“어찌 흐민 조리야.”

노일제대귀일의 뜰 말을 헤워,

설운 남인(男人)님아, 날 살리커건¹¹¹⁾ 율로 요레¹¹²⁾ 가당 보민 대로 노상(大路路上)에 맥을¹¹³⁾
써 앗앙¹¹⁴⁾ 문복(問卜)을¹¹⁵⁾ 허염실거메¹¹⁶⁾ 문복이나 지어나 줍서.”

95) 놈시니 : 놓느냐. 놓고 있느냐.

96) 답수다 : 달습니다.

97) 알아질티 : 알아질 터이냐. 알 수 있겠느냐.

98) 중 : 줄.

99) 긴 중 : 그것인 줄.

100) 알커건 : 알 터이면. 알겠으면.

101) 아닐쎄 : 아닌게아니라. 아니나다를까.

102) 이레 : 이리.

103) 주왁 : 갈 곳을 몰라 몸을 이리 저리 내미는 모양.

104) 골목데레도 : 골목으로도.

105) 가단 : 가던.

106) 주식(子息)신디 : 자식에게.

107) 가아신고 : 갔는가.

108) 그려 : 그리워. 그리워하여.

109) 삼도전거리 : 세거릿길.

110) 일루와 : 일으키어.

111) 살리커건 : 살리겠으면. 살리겠거든.

112) 유클 요레 : 요리로 요리.

113) 맥 : 먹서리.

남선비가 먼문 뱃기¹¹⁷⁾ 나아가난 노일제데귀일의 뜰은 뒷담 넘어 소로(小路)로 ？른질¹¹⁸⁾ 잡아
아전¹¹⁹⁾ 대로노상(大路路上) 돌려가고 맥을 썬 앗았더니. 남선비가 간¹²⁰⁾ 말을 ㅎ뒈.

“문복(問卜)이나 지어줍서.”

“어떤 문복이 뒈옵네까?”

“우리 부인님이 삽시예 신벵(身病) 일루완 수경(死境)에 당해시니. 어느 도에¹²¹⁾ 죄망(罪網)이
멍 문복을 허여줍서.”

손까락을 오그력 폐왁 ㅎ다네,¹²²⁾

“남선비님아, 아들 일곱성제 있으리까?”

“예, 있습네다.”

“일곱성제 애를¹²³⁾ 내여 먹어사 신벵 조으리다.”

남선비가 그 말 들언 집으로 돌아완 보난. 노일제데귀일의 뜰은 ？른질 잡아아전 앞의 돌려와네.

“아야 베여. 아야 베여.”

더군다나 수경(死境)에 당허였구나.

남선비가 방안의 들어가니,

“문복(問卜) ㅎ난 무스거옌¹²⁴⁾ 흡데가?”

“일곱성제 앤 내여 먹어사 신벵 좋기옌¹²⁵⁾ 허여라.”¹²⁶⁾

“아이고, 남인(男人)님아, 이게 무슨 말입네까? 올로 요레 가당 불서. 이번은 ㅂ른바구리¹²⁷⁾ 둘
러써 앗앙 문복(問卜) ㅎ는 사름이 실 거우다. 그디 강 문복을 지어봅서. 아야 베여, 아야 베여.”

남선비가 먼 올레를 나가난 노일제데귀일의 뜰 소롯질(小路—) 잡아아전 앞의 간 ㅂ른바구리
둘러썬 앗아시난¹²⁸⁾ 남선비가 돌려가고,

“문복이나 지어줍서.”

“어떤 문복 뒈옵네까?”

“우리 부인님이 삽시예 신벵(身病) 일루완 죽을 수경(死境) 당허연 오랐수다.”¹²⁹⁾

손가락을 오그력 폐왁 ㅎ단,

“아들 일곱성제 앤 내여 먹어사 신벵 조으리다.”

남선비가 집으로 돌아올 때, 귀일의 뜰은 소롯질(小路—)로 앞의 오란 더군다나.

114) 앗앙 : 앉아서.

115) 문복(問卜) : 문복짓다=점치다.

116) 허염실거메 : 하고 있을 것이므로.

117) 뱃기 : 밖에.

118) ？른질 : 가로질러 가는 길. 지름길.

119) 잡아아전 : 잡아서.

120) 간 : 가서.

121) 도 : 신령을 가리키는 말. 당신명(堂神名) '백중도, 천중도' 등의 '-도'가 이것임.

122) 오그력 폐왁 ㅎ다네 : 꼬부렸다 했다 하다가.

123) 애 : 창자. 특히 간을 가리킴.

124) 무스거옌 : 무엇이라고.

125) 좋기옌 : 좋겠다고.

126) 허여라 : 하더라.

127) ㅂ른바구리 : 종이를 바른 바구니.

128) 앗아시난 : 앉아 있으니까.

129) 오랐수다 : 왔습니다.

“아야 베여, 아야 베여, 설운 날¹³⁰⁾ 무스거옌¹³¹⁾ 흡데가?”

“일곱성제 애 내여 먹어사 좋기엔 허여라.”

“설운 낭군(郎君)님아, 경후건¹³²⁾ 일곱성제[七兄弟] 앤 내여주민, 나가 살아낭 혼 베예¹³³⁾ 쇳썩¹³⁴⁾ 식번만 나민¹³⁵⁾ 성제(兄弟)가 더 부땅¹³⁶⁾ 아옵성제[九兄弟]가 뭘 게 아니우파?”

남선비가 은장두(銀粧刀)를 실금실금 골암더니,¹³⁷⁾ 뒤집[後家]의 청태산마구할망 불 담으레¹³⁸⁾ 오랐다네,¹³⁹⁾

“남선비야, 어떤 일로 칼을 골암시니?”

“우리 집잇 부인님이 삽시에 신벵 일롼¹⁴⁰⁾ 죽을 수경 당허여네 혼두밧디¹⁴¹⁾ 간 문복(問卜)을
호난 일곱성제 애 내여 먹어사 좋기엔 허연 애 내젠¹⁴²⁾ 칼 골암수다.”¹⁴³⁾

그 말 들은 청태산할망은 혼겁이 난 먼 올레예 나사네,¹⁴⁴⁾ 수도전거릴¹⁴⁵⁾ 부례여 보난 남선비
아들 일곱성제가 시난,¹⁴⁶⁾

“설운 아기덜아, 느네¹⁴⁷⁾ 집의 간 보난¹⁴⁸⁾ 느네 아바진 느네 일곱성제 앤 내젠¹⁴⁹⁾ 칼을 골암
서라.”¹⁵⁰⁾

일르니, 일곱성제가 더군다나 대상통곡(大聲痛哭) 울다가, 똑똑한 녹디생인이 말을 헉ಡ.

“설운 성님덜아, 기영¹⁵¹⁾ 울지 말양 이디 사아시민¹⁵²⁾ 아바님 ?는 칼을 어떻 허여실값에¹⁵³⁾
저가 빼여 오리웨다.”

성님네 수도전거리 세와 두고 녹디생인 들어가, 아바님전 일르ಡ.

“아바님아, 아바님아, 어떤 일로 칼을 긱네까?”

“그런 것이 아니라, 느네 어머님이 신벵 들어 수경(死境)에 이르니, 어디 간 문복을 호난 느네
일곱성제 앤 내여 먹어사 좋기엔 허연 앤 내젠 칼을 ?노라.”

“아바님아, 그건 좋은 일이우다. 아바님아, 아바님 손으로 우리 일곱성제 앤 내민 우리 몸천[肉
身]을 흑[土] 혼 골체썩¹⁵⁴⁾ 지치젱¹⁵⁵⁾ 허여도 일곱 골체가 아니우까? 그 칼을 날 주민 설운 성님

130) 날 : 나를, 나에 대해서.

131) 무스거옌 : 무엇이라고.

132) 경후건 : 그리 하거든.

133) 혼 베예 : '한번의 해산(解產)에'의 뜻.

134) 쇳썩 : 셋썩.

135) 나민 : 낳으면.

136) 부땅 : 불어서.

137) 골암더니 : 같고 있더니.

138) 불 담으레 : 불담으려. 불 빌려의 뜻. 성냥이 없었던 때 아궁이나 화로에 종일 피워두는 불을 이웃끼리 빌어다 썼음.

139) 오랐다네 : 왔다가.

140) 일롼 : 일으켜서.

141) 혼두밧디 : 한두 군데.

142) 내젠 : 내자고.

143) 골암수다 : 갑니다. 같고 있습니다.

144) 나사네 : 나서서.

145) 수도전거릴 : 네거릿길을.

146) 시난 : 있으니까.

147) 느네 : 너희.

148) 보난 : 가서 보니.

149) 내젠했어 : 내려고.

150) 골암서라 : 같고 있더라.

151) 기영 : 그리.

152) 이디 사아시민 : 여기 서 있으면.

153) 어떻 허여실값에 : 어떻게 하든 간에.

네 굴미굴산 깊은 곳[藪] 둘양 강¹⁵⁶⁾ 으[六] 성님네 앤 내영 오랑¹⁵⁷⁾ 어머님 멱여방그네¹⁵⁸⁾ 수력
(效力) 싯건¹⁵⁹⁾ 나 흐나랑 아바님 손으로 앤 내옵소서.”

“어서 걸랑 그리 흐라.”

칼을 내여주니 설운 성님네 돌아아전¹⁶⁰⁾ 깊은 굴산 올라가단 시장에도 물려지고¹⁶¹⁾ 헤남석¹⁶²⁾
앗안 졸단 보난¹⁶³⁾ 맹왕(冥王) 가던 어머님이 꿈에 선몽(現夢) 드리워.

“설운 아기덜아, 어서 바삐 눈을 텅¹⁶⁴⁾ 부레여 보라. 산중(山中)으로 노리[獐] 흔 머리가 누려
오람시니¹⁶⁵⁾ 그 노릴 심엉¹⁶⁶⁾ 죽일 팔로 둘럼시민¹⁶⁷⁾ 알 도례(道理) 이시리라.”

일곱성제 눈을 턴 부레여 보난, 아닐째 노리 흔 머리가 누려왔시니, 그 노릴 심언 죽일 팔로
둘러가난.

“설운 도련(道侶)덜아, 날 죽이지 말곡 나 뒤에 보민 산톳[山猪]¹⁶⁸⁾ 일곱이 누렴시니¹⁶⁹⁾ 에미랑
씨전종(一傳種)으로 놔두곡 새끼 으[六]이랑 앤 내여 가옵소서.”

“그짓말 아니냐?”

노리 꼴릴¹⁷⁰⁾ 끄치고¹⁷¹⁾ 벽지(白紙) 흔 텁¹⁷²⁾ 내여 놔 노리 조롬에¹⁷³⁾ 부쳤더니, 그 때에 내온
법으로 노리 몸뚱이가¹⁷⁴⁾ 아리롱 다리롱¹⁷⁵⁾ 흐는 법이옵고, 노리 꼴리가 쫄르는¹⁷⁶⁾ 법이웨다.

아닐커라.¹⁷⁷⁾ 산돛[山猪] 일곱이 누렴시난 에미[母]는 씨전종(一傳種) 노아두고 새끼 으[六]
애를 내여 오장삼에¹⁷⁸⁾ 훌훌 싸아전¹⁷⁹⁾ 수도전거릴¹⁸⁰⁾ 당흐고,

“설운 성님네랑 동서남북 중왕(中央)으로 벌려삽서. 나 큰 소리 나건¹⁸¹⁾ 동서(東西)으로 들려듭서.”

성님네 수오방(四五方)으로 다 벌여 세와 두고, 녹디생인, 애 으[六]을 앗언 들어간.

“어머님아, 이걸 잡수와 봅서.”

“설운 아기야, 중벵(重病) 든디 약 먹는 거 아니본다. 늘랑¹⁸²⁾ 나강 시라.”¹⁸³⁾

154) 흔 골체썩 : 한 삼태기씩.

155) 지치젱 : 끼얹으려고.

156) 둘양 강 : 데리고 가서.

157) 오랑 : 내어 와서.

158) 멱여방그네 : 먹여 봐서.

159) 싯건 : 있거든.

160) 돌아아전 : 데리고, 데려서.

161) 물려지고 : 물려지고.

162) 헤남석 : 양지 바른 곳.

163) 졸단 보난 : 졸다가 보니.

164) 텅 : 떠서.

165) 누려오람시니 : 내려오고 있으니.

166) 심엉 : 잡아서.

167) 둘럼시민 : 두르고 있으면.

168) 산돛(山猪) : 멧돼지.

169) 누렴시니 : 내리고 있으니.

170) 꼴릴 : 꼬리를.

171) 끄치고 : 끊고.

172) 흔 텁 : 한 조각.

173) 조롬에 : 꽁무니에.

174) 몸뚱이가 : 몸뚱이가.

175) 아리롱다리롱 : 아롱다롱.

176) 쫄르는 : 짧은.

177) 아닐커라 : 아닌게아니라.

178) 오장삼 : 띠나 징 한 줌을 양쪽 끝을 묶어 그 속에 고기 따위를 담아 가져 다니게 만든 물건.

179) 훌훌 싸아전 : 달달 싸서.

180) 수도전거릴 : 네거리들.

181) 나건 : 나거든.

녹디생인 뱃겼딜로¹⁸⁴⁾ 나올 때, 상손가락에 춤 불란 창궁기 뜰وا두고¹⁸⁵⁾ 뱃겼딜로 나오란 거동(舉動)을 보난. 애 으슷 먹는 척 흐멍 자리[席] 알레레 소롱소롱¹⁸⁶⁾ 묻고, 피는 입바위예¹⁸⁷⁾ 부르는 척 마는 척 허여가난. 녹디생인이 들어가고 말을 흐뒈.

“어머님아, 약 다 먹읍데가?”

“으¹⁸⁸⁾, 다 먹고라.”¹⁸⁹⁾

“어머님 신벵이 어떠한가?”

“흐꼼¹⁹⁰⁾ 나사베다마는¹⁹¹⁾ 흐나만 더 먹어시민 아주 활짝 조아질 듯흐다.”

“어머님, 영흡서.¹⁹²⁾ 마주막으로 어머님 머리옛 닉[疊]나 잡아드리쿠다.”

“중벵(重病) 든 디, 닉 아니 잡나.”¹⁹³⁾

“영 흡서. 경흐건¹⁹⁴⁾ 방안이나 치와 드리저.”

“중벵 든디, 방 아니 칩나.”¹⁹⁵⁾

그때, 녹디생인이 성식을¹⁹⁶⁾ 발딱 내멍 노일제데귀일의 뜰 쉰대자[五十五尺] 머릿고빌¹⁹⁷⁾ 웨오 누다[左右] 핑핑 감아 훈펜데레¹⁹⁸⁾ 잡아 업질러 두고, 훈착 손에 애 식개[三個]씩 으슷깰 쥘여아 전¹⁹⁹⁾ 지붕상상²⁰⁰⁾ 조추무를²⁰¹⁾ 높은 곳 올라간.

“요 동넷 어른덜아, 저 동넷 어른덜아. 다슴어멍[繼母] 다슴아기[繼子] 신 사름덜아, 날 보양 정 다십서.”

“설운 성님네야, 동서으로 둘려듭서.”

동서으로 와라치라 둘려드니, 남선비 들을 질 이어²⁰²⁾ 먼 올레예 나둔단²⁰³⁾ 정쌀에²⁰⁴⁾ 목걸려 죽고, 노일제데귀일의 뜰 벽부름[壁]²⁰⁵⁾ 허우튿언²⁰⁶⁾ 벽부름 궁기 뜰وا네²⁰⁷⁾ 통시예²⁰⁸⁾ 들어가 쉰대자(五十五尺) 머릿고비 드딜팡에²⁰⁹⁾ 목을 메여 죽고, 일곱성제(七兄弟) 둘려들어 죽은 우[上]

182) 늘랑 : 너는.

183) 나강 시라 : 나가 있거라.

184) 뱃겼딜로 : 바깥으로.

185) 뜰وا두고 : 뚫어두고.

186) 소롱소롱 : 길쭉한 것들이 차례차례 놓여진 모양.

187) 입바위예 : 입술에.

188) 응 : 응. 대답하는 소리.

189) 먹고라 : 먹었노라.

190) 흐꼼 : 조금.

191) 나사베다마는 : 나아뵈다마는.

192) 영흡서 : 이리 하십시오. 무슨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상대방에게 비켜주거나 방해를 말게 하거나 허락해주기를 청유(請誘) 할 때 ‘영흡서—흐저. 영흡서—흐게. 영흐라—흐게’ 구문형을 씀.

193) 잡나 : 잡는다.

194) 경흐건 : 그리 하거든.

195) 칩나 : 치운다.

196) 성식을 : 화를. 성을.

197) 머릿고빌 : 긴 머리가 돌려 굽이친 부분을.

198) 훈펜데레 : 한편으로.

199) 쥘여아전 : 쥐어서. 쥐어 가지고.

200) 지붕상상 : 지붕 위.

201) 조추무를 : 상마루 맨 위 꼭대기.

202) 이어 : 잃어.

203) 나둔단 : 내닫다가.

204) 정쌀 : 정낭과 같음. 집의 출입로인 ‘올레’에 대문 대신 가로 걸쳐 놓는 굽은 나뭇대.

205) 벽부름[壁] : 바람벽.

206) 허우튿언 : 굵어 뜯어.

207) 뜰وا네 : 뚫어서.

208) 통시 : 뒷간. 돼지 기르기를 겸한 변소임.

의 포시²¹⁰⁾ 양각(兩脚)을 틀언²¹¹⁾ 드딜팡을 서련²¹²⁾ 데가린 그찬²¹³⁾ 뜻도고리²¹⁴⁾ 서련²¹⁵⁾ 머리터럭은 그찬 데껴 부난²¹⁶⁾ 저 바당[海]이 폐가²¹⁷⁾ 뛰고, 입은 그찬 데껴부난 솔치 가²¹⁸⁾ 뛰고, 손콥 발콥²¹⁹⁾ 그찬 데껴부난 췌궁벗 돌궁벗²²⁰⁾ 뛰고, 벗똥은²²¹⁾ 그찬 데껴부난 궁벗 이 뛰고, 하문(下門)은 그찬 데껴부난 대점복(大全鰐) 소점복이 뛰고, 몸천[肉身]은 독독 뜻 안²²²⁾ 허풍부름(虛風一)에 불려부난²²³⁾ 고다귀 모기[蚊] 몸에 환생(還生)시겨 보내두고, 일곱성전 서천 꽃밭[西天花田] 올라가 황세곤간²²⁴⁾ 지달례여²²⁵⁾ 도환생꽃[還生花]을 타다네 오동나라 주천강(酒泉江) 연못(蓮池)딜 간.

“맹천(明天)? 뜬 하늘님아, 주천강 연못이나 뿐게²²⁶⁾ 허여 줍서. 어머님 신체(身體)나 쫓으리다.” 주천강 연못이 삽시예 쫓아지난,²²⁷⁾ 어머님 죽은 뼈[骨]는 술그랑²²⁸⁾ 허여시니 뻔 도리도리²²⁹⁾ 모다 난 도환생꽃[還生花]을 놓고 금풍체[金扇]로 후리니, 감태(甘苔)? 뜬 머리 허붕치멍,²³⁰⁾ “아이고, 봄잠[春眠]이라 늦게 잤저.”

어머님이 인간(人間) 도살아 오랐구나.

“어머님 누어난 자린덜사²³¹⁾ 내불리야.”²³²⁾

혹[土]을 도리도리 모다놓고 으수성제[六兄弟] 돌아가멍 손주먹으로 훈 번씩 찍은 게 으수 고망 이 터지고, 녹디셍인 성식을 발딱 내멍 뒤치기로²³³⁾ 훈번을 찍은 게 상고망[上孔]이²³⁴⁾ 터집데 다. 그 때예 내온 법으로 시릿고망²³⁵⁾ 일곱을 서련흡데다.

어머님을 살리고 집으로 돌아오란,

“어머님은 춘화추동(春夏秋冬) 스시절(四時節) 물에만 살젠²³⁶⁾ 혼난 몸인덜사 아니 실립네까?²³⁷⁾ 어머 님이랑 혼를맞양²³⁸⁾ 삼식번[三番] 더운 불을 초멍²³⁹⁾ 삼덕조왕으로²⁴⁰⁾ 맞양 얻어먹기 서련흡서.”

209) 드딜팡 : 변을 볼 때 디디고 앉게 걸쳐 놓은 넓고 얇은 돌.

210) 포시²¹⁰⁾ : 원수 갚고자.

211) 틀언 : 뜯어서.

212) 서련²¹²⁾ : 마련하고, 시작하고의 뜻.

213) 그찬 : 끊어서.

214) 뜻도고리 : 돼지 먹이를 주는 그릇. 등그스름하게 돌을 파서 만든다.

215) 데껴 부난 : 던져 버리니.

216) 폐가 : 해조명(海藻名).

217) 솔치 : 어명(魚名).

218) 손콥 발콥 : 손톱 발톱.

219) 돌궁벗 : 딱지 조개의 일종.

220) 벗똥은 : 배꼽은.

221) 뜻 안 : 빨아.

222) 불려부난 : 날려버리니.

223) 황세곤간 : 서천꽃밭의 주재신(主宰神).

224) 지달례여 : 달래어. ‘지-’는 접두사.

225) 뿐게 : 마르게.

226) 쫓아지난 : 잣아지니.

227) 술그랑 : 많은 뼈 따위가 고스란히 있는 모양.

228) 도리도리 : 순서대로. 차례차례.

229) 허붕치멍 : 풀치면서.

230) 자린덜사 : 자리인들.

231) 내불리야 : 내버리랴.

232) 뒤치기 : 발 뒤꿈치.

233) 상고망(上孔) : 시루의 가운데 구멍.

234) 시릿고망 : 시릇 구멍.

235) 실립네까 : 시립니까(寒).

236) 혼를맞양 : 하루 계속하여의 뜻.

237) 초멍 : 쪼며.

238) 삼덕조왕 : 조왕신(竈王神)을 일컫는 말.

어명국[母]은 삼덕조왕으로 서련하고,

“아바님은 정쌀에 걸려 죽어시니 올레 주목 정쌀지신으로²³⁹⁾ 들어사곡, 큰성님이랑 동방청대장군(東方青帝將軍)으로²⁴⁰⁾ 들어사곡, 셋성님이랑 서방백대장군(西方白帝將軍)으로 들어사곡, 쇳찻성님이랑²⁴¹⁾ 남방국(南方國) 적대장군(赤帝將軍)으로 들어사곡, 낮찻성님이랑²⁴²⁾ 북(北)의 흑대장군(黑帝將軍)으로 들어사곡, 다섯찻성님이랑 중왕황대장군(中央黃帝將軍)으로 들어사곡 으쏘찻성님이랑²⁴³⁾ 뒷문전(後門前)으로²⁴⁴⁾ 들어삽서.”

녹디셍인은 일문전[一門前]으로²⁴⁵⁾ 들어삽데다.

그 때예 내온 법으로 삼멩일(三名日) 기일 제소(忌日祭祀) 때, 문전제(門前祭) 지나나민²⁴⁶⁾ 웃제반은²⁴⁷⁾ 지붕상상(上上) 우올리곡²⁴⁸⁾ 알제반은²⁴⁹⁾ 어명국 삼덕조왕으로 우올립네다.

노일제데귀일이 뚫 칙도(廁道)에²⁵⁰⁾ 간 죽어시니, 칙도부인(廁道夫人)으로²⁵¹⁾ 마련하고, 그 때내온 법으로 벤소(便所)광 조왕(竈王)이²⁵²⁾ 맞사민²⁵³⁾ 좋지 못하는 법이라, 조왕잇 거²⁵⁴⁾ 벤소에 못가고 벤소엣 거 조왕의 못 가는 법입네다.

시여나도²⁵⁵⁾ 문전(門前) 시여 들어도 문전, 일문전(一門前) 난산국이 뛰옵네다.

- 濟州市 龍潭洞 男巫 安仕仁 口誦

옛날옛적 남선고을 남선비와 여산고을 여산부인이 살고 있을 때, 집안은 가난하고 아들은 낳는다는 것이 일곱 형제가 태어나옵니다. 하루는 여산부인이 말을 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자식들도 많아 살 수가 없으니 무곡장사나 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서 그것은 그렇게 해라.”

남선비는 전배독선을 잡아 놓고 처가속과 어린 자식을 이별하여 남선고을을 떠나 바람 부는 대로, 물결이 일어나는 대로 가는 것이 오동나라 오동고을로 들어갔습니다.

오동나라 오동고을 노일제데귀일의 딸이 남선고을 남선비가 전배독선을 잡아타고 무곡장사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는 오동나라 선창가에 가고 보니 남선비가 전배독선을 타고 왔으니 없는 아양을 사뭇 떨면서,

“남선비야, 남선비야, 이리 와서 우리 심심소일로 바둑 장기나 두면서 놀이나 하여 봅시다.”

239) 주목정쌀지신 : '올레' 어귀에 '정쌀'을 꿰어 걸치도록 구멍을 파 세워 놓은 주목(柱木)과 정쌀의 신.

240) 동방청대장군(東方青帝將軍) : 방위신(方位神).

241) 쇳찻성님 : 세째 형님.

242) 낮찻성님 : 네째 형님.

243) 으쏘찻성님 : 여섯째 형님.

244) 뒷문전(後門前) : 삼방(마루방)의 뒤쪽 문신.

245) 일문전(一門前) : 삼방(마루방)의 앞쪽 문신(門神).

246) 지나나민 : 지난 후면. '-나-'는 대과거보조어간.

247) 웃제반 : 제(祭)를 지낸 후 젯상 위의 각 제물을 조금씩 처음 걷어 모은 것.

248) 우올리곡 : 올리고의 공대말.

249) 알제반 : 웃제반 걷은 후 다시 조금씩 걷어 모은 것.

250) 칙도(廁道) : 뒷간, 측간(廁間).

251) 칙도부인(廁道夫人) : 뒷간의 신명.

252) 조왕(竈王) : 부엌의 뜻으로 쓴 것.

253) 맞사민 : 마주 서면, 마주 위치하면의 뜻.

254) 조왕잇 거 : 부엌엣 물건.

255) 시여나도 : 혜어나가도.

“어서 그것은 그렇게 합시다.”

남선비가 바둑 장기를 벌여 놓고 이리 두고 저리 두고 놀다 보니, 전배독선은 다 팔아먹고 노일제데귀일의 딸과 나무돌찌귀 거적문 수수깡 외기둥의 아주 작은 초막에 앉아 겨죽 단지 옆에 차고,

“이 개 저 개 주어 저 개.”

쫓으면서 끄덕끄덕 졸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산부인은 연삼년을 기다려도 남선비님의 소식이 없으니 아들 일곱 형제를 불러 말을 하되,

“너희 아버지가 무곡장사를 갔는데, 여태 안 오는 것을 보니 필시 곡절이 있는 듯 이상하다. 깊은 산 속으로 올라가 곧은 나무를 베어다가 전배독선을 만들어 주면 너희 아버지를 찾아오마.”

일곱 형제는 어머니가 말하는 대로 깊은 산 속으로 올라가서 곧은 나무를 베어다가 전배독선을 만들어 놓으니, 여산부인도 일곱 형제를 이별하고 남선고을을 하직하여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이는 대로 가는 것이 오동나라 오동고을로 배를 댈 수 있습니다.

오동나라 오동고을로 들어가니 기장 밭에 새를 쫓는 아이들이.

“이 새 저 새 너무 약은 체 말아라. 남선비 약은 깐에도 노일제데귀일의 딸 호탕에 들어서 전배독선을 다 팔아먹고 비조리초막에 앉아 겨죽 단지를 옆에 놓고 ‘이 개 저 개 주어 저 개’ 쫓고 있다. 이 새 저 새 주어 저 새!”

여산부인이 그 말을 듣고 기장 밭에 새를 쫓는 아이에게 말을 하되,

“방금 너희들 한 말이 무슨 말이냐? 방금 한 말을 일러주면 영초댕기나 해 주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리 말고 조금만 말해 주어라.”

“아까는 이 새 저 새 너무 약은 척 말아라. 남선비 약은 깐에도 노일의 딸 호림에 들어서 전배독선을 다 팔아먹고 겨죽 단지를 옆에 차 앉아 ‘이 개 저 개 주어 저 개’ 하며 쫓고 있더라 하고 말했습니다.”

“설운 아기야. 남선비는 어디 살고 있느냐? 남선비 있는 데를 가르쳐 주어라.”

“요 고개를 넘어서 가십시오. 저 고개를 넘어서 가십시오. 이 고개를 넘고 저 고개를 넘어서 가다 보면 거적문에 나무돌찌귀 달린 비조리초막에 살고 있습니다.”

여산부인은 기장밭에서 새를 쫓는 아이에게 영초댕기를 달아줘 두고, 이 고개 넘어 저 고개 넘어 가다 보니, 남선비가 사는 집이 가까워졌다. 여산부인이 들어가면서 말을 하되,

“길을 넘어가는 사람이 날이 다 저물어서 하룻밤 머물고 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남선비가 말을 하되,

“아이고, 설운 부인님아. 우리 집에는 집안도 좁고 손님이 머물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외출하러 나가면서 집을 지고 다닙니까? 부엌이라도 빌려주십시오.”

남선비가 허락하니, 여산부인은 부엌을 들어서서 솥을 열어 보니, 겨죽은 바싹 놀아 있으므로 솥을 한번 두번 세번을 닦아 놓고 나주영산 은옥미를 놓아서 저녁밥을 지어서 남선비에게 가져가니 남선비가 첫술을 들면서 눈물을 다르륵히 흘립니다.

“설운 부인님아, 이게 어떤 일입니까? 나도 옛날에는 이런 밥을 먹었습니다. 나도 본래는 남선고을 남선비가 됩니다. 무곡장사를 왔다가 노일제데귀일이 딸 호림에 빠져 전배독선을 다 팔아먹고 죽지도 살지도 못하고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산부인이 말을 하되.

“설운 남선비님아, 날 모르겠습니까? 내가 여산부인이 됩니다.”

남선비가 여산부인의 팔목을 부여잡고 만단정화를 이르고 있는데, 노일제데귀일의 딸은 어디 가서 남에게 품팔이를 하여 치맛자락에 겨 한 되를 싸 들고 먼 올래로 들어서면서,

“이 놈 저 놈 죽일 놈아, 나는 어디 가서 죽을 듯 살 듯 겨 한 되라도 빌어다가 죽을 쑤어 배 불리 먹여 놓으니 길 넘어가는 여자를 데려다 놓고 만단정화만 이르고 있구나.”

욕을 하면서 들어오니, 남선비가 말을 하되.

“설운 부인님아, 그렇게 욕을 말고 어서 들어와 보아라. 어서 들어오면 모든 말이 저절로 나올 것이다.”

노일제데귀일의 딸이 방으로 들어가니 남선비가 말을 하되,

“여산고을 큰부인이 나를 찾아왔구나.”

그 말 들은 노일제데귀일의 딸,

“아이고, 설운 형님아, 오뉴월 한 더위에 우리를 찾아오려 한 것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오십시오. 우리 시원하게 목욕이나 하고 와서 저녁밥이나 지어 먹고 노는 것이 어떻습니까?”

진실이라고 안 여산부인은,

“어서 그것은 그렇게 하자.”

주천강 연못에 목욕하려 같이 가니 노일제데귀일의 딸이,

“설운 형님아, 옷을 벗으십시오. 등이나 밀어드리겠습니다.”

여산부인은 웃옷을 벗어 굽으니, 물 한 줌을 쥐어 놓아 미는 척하다가 앞으로 힘껏 떠밀어 버리니, 여산부인의 감태 같은 머리는 여기저기 흘어지면서 주천강 연못에 수중영장이 되옵니다.

노일제데귀일의 딸은 여산부인이 입은 의복을 벗겨 입고, 남선비에게 들어가서,

“설운 낭군님아, 노일제데귀일의 딸 행실이 괜씸하길래 주천강 연못에 가 죽여두고 왔습니다.”

남선비가

“하하, 그 년 잘 죽였다. 나 원수를 갚았구나. 가자,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전배독선 잡아타고 오동나라를 하직하여 남선고을 수평선에 가까워 가니, 남선비 아들 일곱형제가 아버님 어머님 온다고 선창가에 마중나와 부모님 오시는데 무엇으로 다리를 놓을까. 큰아들은 망건 벗어 다리를 놓고, 둘째아들은 두루마기를 벗어 다리를 놓고, 셋째 아들은 적삼을 벗어 다리를 놓고, 넷째 아들은 잠방이를 벗어 다리를 놓고, 다섯째 아들은 행전을 벗어 다리를 놓고, 여섯째 아들은 버선을 벗어 다리를 놓고, 똑똑하고 역력한 녹디생인은 칼 선 다리를 놓았습니다.

설운 형님들이 말을 하되.

“어떤 일로 부모님이 오시는데 칼 선 다리를 놓느냐?”

“설운 형님아, 아버님은 우리 아버님이지마는 어머님은 우리 어머님이 아닌 듯 합니다.”

“어떻게 하여 알아지겠느냐?”

“어머님이 우리 어머님이 아닌지 맞는지 알려면 배에서 내려 집을 찾아가는 것을 보면 알 도리가 있을 것입니다.”

아닌게 아니라 부모님이 선창가에 내려 부모 자식간에 그동안 고생한 만단정화를 나누고,

“어서 아버님 어머님아, 집으로 가십시오.”

집을 찾아가는 것이 노일제데귀일의 딸은 이쪽으로 가다가 저쪽으로 가다가 이 골목으로도 들어서고 저 골목으로도 들어서려 하니, 일곱 형제는

“우리 어머님이 아니로구나.”

확실히 알고, 집에 들어가서 밥상을 차려 놓는 것을 보니, 아버님께 가던 상은 자식에게 가고, 자식이 받던 상은 아버님께 가고 하여 가니, 더군다나 일곱 형제는

“우리 어머님이 아니로구나”

합디다.

그날부터 일곱 형제는,

“우리 어머님은 어느 고을에 가 계신고?”

어머님을 그리워하며 눈물로 세월을 보낼 때, 하루는 일곱 형제가 세거리 길에 나가서 어머님 생각을 하면서 슬프게 울고 있는데, 노일제데귀일의 딸이 삽시간에 배 아픈 꾀병을 일으키어 방네 구석을 뱅뱅 돌면서,

“아야 배여, 아야 배여.”

죽을 사경이 되어 갔다. 남선고을 남선비가 혼겁을 집어먹고,

“어쩌면 좋으랴.”

노일제데귀일의 딸이 말을 하되,

“설운 남인남아, 나를 살리려거든 이리 저리 하여 가다 보면 대로 노상에 멱서리를 쓰고 앉아 점을 치고 있을 테니 점이나 한번 쳐다 주십시오.”

남선비가 먼 문 밖에 나가니 노일제데귀일의 딸은 담을 넘어 소로로 지름길을 잡아서 대로 노상에 달려가 멱서리를 쓰고 앉았더니, 남선비가 가서 말을 하되,

“점이나 한번 쳐 주십시오.”

“어떤 점이 됩니까?”

“우리 부인님이 삽시간에 몸에 병이 들어 사경에 당했으니, 어느 신에게 잘못을 한 것인지 점이나 쳐 봐 주십시오.”

손가락을 꼬부렸다 펴다 하다가,

“남선비님아, 아들 일곱 형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일곱 형제 간을 내어 먹어야 몸에 병이 낫겠습니다.”

남선비가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노일제데귀일의 딸은 지름길을 잡아서 미리 달려 와서는,

“아야 배여, 아야 배여”

더구나 사경에 당하였구나. 남선비가 방안에 들어가니,

“점을 치니 뭣이라 하였습니까?”

“일곱 형제의 간을 내어 먹어야 몸의 병이 낫겠다고 하더라.”

“아니고, 남인님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리로 저리로 하여 가다 보십시오. 이번은 종이를 바른 바구니를 둘러쓰고 앓아서 점을 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 가서 점을 쳐 보십시오. 아야 배여, 아야 배여.”

남선비가 먼 올래로 나가니 노일제데귀일의 딸은 소롯길을 잡아서 먼저 가서는 종이를 바른 바구니를 둘러쓰고 앓아 있으니, 남선비가 달려가서,

“점이나 한 번 쳐 주십시오.”

“어떤 점이 됩니까?”

“우리 부인님이 삽시간에 몸에 병을 일으켜서 죽을 사경에 당하여 왔습니다.”

손가락을 꼬부렸다 펤다 하다가,

“아들 일곱 형제의 간을 내어 먹어야 몸의 병이 낫겠습니다.”

남선비가 집으로 돌아올 때, 귀일의 딸은 소롯길로 먼저 돌아와 더군다나,

“아야 배여, 아야 배여, 설운 내 병을 무엇이라고 합디까?”

“일곱 형제의 간을 내어 먹어야 좋겠다고 하더라.”

“설운 낭군님아. 그러거든 일곱 형제의 간을 내어 주면, 내가 살아나서 한 배에 셋씩 세번만 낳으면 형제가 더 불어서 아홉 형제가 될 거 아닙니까?”

남선비가 은장도를 실금실금 갈고 있더니, 뒷집의 청태산 마구할머니가 불을 담으러 왔다가,

“남선비야, 어떤 일로 칼을 갈고 있느냐?”

“우리 집의 부인님이 삽시간에 몸에 병을 일으켜 죽을 사경에 당해서 한두 군데 가서 점을 치니 일곱 형제의 간을 내어 먹어야 낫겠다고 해서 간을 내려고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 말 들은 청태산할머니는 혼겁이 나서 먼 올래로 나서서 네거릿길을 바라보니 남선비 아들 일곱 형제가 있으니,

“설운 아기들아, 너희 집에 가 보니 너희 아버지는 너희들 일곱 형제의 간을 내려고 칼을 갈고 있더라.”

말을 마치니, 일곱 형제가 더군다나 대성통곡하며 우는데, 똑똑한 녹디생인이 말을 하되,

“설운 형님들아, 그리 울지 말고 여기 서 있으면 아버님이 가는 칼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가 빼앗아 오겠습니다.”

형님들을 네거릿길에 세워 두고, 녹디생인이 들어가 아버님께 말씀을 드리되,

“아버님아, 아버님아, 어떤 일로 칼을 갑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어머님이 몸에 병이 들어서 사경에 당하므로 어디 가서 점을 치니 너희 일곱 형제의 간을 내어 먹어야 좋겠다고 해서 간을 내려고 칼을 갈고 있노라.”

“아버님아,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아버님아, 아버님 손으로 우리 일곱 형제의 간을 내면 우리 육체를 흙 한 삼태기씩이라도 끼얹으려고 하여도 일곱 삼태기가 아닙니까? 그 칼을 나에게 주면 설운 형님들을 굴미굴산 깊은 숲속에 데리고 가서 여섯 형님들의 간을 내어 와서 어머님께 먹여 봐서 효력이 있으면 나 하나는 아버님 손으로 간을 내십시오.”

“어서 그것은 그리 하라.”

칼을 내어 주니, 설운 형님들을 데려서 깊은 굴산 올라 가다가 시장기가 몰려와 양지 바른 곳에 앉아 졸다 보니, 저승가던 어머님이 꿈에 나타나.

“설운 아기들아, 어서 바삐 눈을 떠서 바라 보아라. 산중으로 노루 한 마리가 내려오고 있으니, 그 노루를 잡아서 죽일 판으로 위협을 주고 있으면 알 도리가 있을 것이다.”

일곱 형제가 눈을 떠서 바라보니, 아닌게 아니라 노루 한 마리가 내려오고 있으므로, 그 노루를 잡아 죽일 판으로 위협을 주니.

“설운 도령들아, 나를 죽이지 말고 나 뒤에 보면 멧돼지 일곱이 내려오고 있으니 어미는 씨를 전할 것으로 놓아두고 새끼 여섯은 간을 내어 가십시오.”

“거짓말 아니냐?”

노루 꼬리를 끊고 백지 한 조각을 내어 놓아 노루 꼭무니에 붙였더니, 그 때에 낸 법으로 노루 몸뚱이가 아롱다롱하는 법이고, 노루 꼬리가 짧은 법입니다.

아닌게 아니라 멧돼지 일곱마리가 내려고 있으니 어미는 씨반으로 놓아두고 새끼 여섯마리의 간을 내어 오장삼에 단단하게 싸서 네거릿길에 이르러.

“설운 형님들이랑 동서남북 중앙으로 벌려 서십시오. 내가 큰 소리를 지르거든 동서쪽에서 달려드십시오.”

형님들을 사오방으로 다 벌려 세워 두고, 녹디생인이 간 여섯을 가지고 들어가서,

“어머님아, 이것을 잡숴 보십시오.”

“설운 아기야, 중병이 든 데는 약 먹는 것을 안 본다. 너는 나가 있어라.”

녹디생인은 바깥으로 나올 때, 상손가락에 침을 발라서 창에 구멍을 뚫어두고 바깥으로 나와서 거동을 보니, 간 여섯을 먹는 척 하면서 앉은 자리 밑으로 슬쩍 슬쩍 감추고, 피는 입술에 바르는 척 마는 척 해 가니, 녹디생인이 들어가서 말을 하되,

“어머님아, 약을 다 자셨습니까?”

“그래, 다 먹었다.”

“어머님 몸의 병이 어떠합니까?”

“조금 나아보인다마는 하나만 더 먹었으면 아주 활짝 좋아질 듯하다.”

“어머님, 그럼 마지막으로 어머님 머리의 이나 잡아드리겠습니다.”

“중병이 든 때는 이를 안 잡는다.”

“그러면 방안이나 치워드리겠습니다.”

“중병 든 때는 방을 안 치운다.”

그때, 녹디생인이 화를 발딱 내면서 노일제데귀일의 딸의 쉰 다섯 자 머리를 좌우로 뻥뻥 감아서 한 편으로 잡아 엎질러 두고, 한쪽 손에 간 세개씩 여섯 개를 쥐어서 지붕 위 상마루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동네 어른들아, 저 동네 어른들아, 의붓어머니 의붓자식 있는 사람들아, 나를 보고 반성하십시오.”

“설운 형님들아, 동서쪽으로 달려드십시오.”

동서로 와라치라 달려드니. 남선비는 도망갈 길을 잃어 먼 올래로 내닫다가 정낭에 목이 걸려 죽고, 노일제데귀일의 딸은 바람벽을 깎어 뜯어서 벽에 구멍을 뚫어 변소에 들어가 쉰 다섯 자 머리를 변소 발판에서 목을 메어 죽고, 일곱 형제는 달려들어 죽은 위에 다시 복수하고자 두 다리를 뜯어 드딜팡을 만들고, 머리는 끊어서 돼지 먹이통을 만들고, 머리털은 끊어 던져 버리니 저 바다의 폐가 되고, 입은 끊어 던져 버리니 솔치가 되고, 손톱 발톱은 끊어 던져 버리니 쇠굼 벗 돌굼벗이 되고, 배꼽은 끊어 던져 버리니 굽벵이가 되고, 육신은 독독 빽아서 바람에 날려 버리니 각다귀 모기 몸으로 환생시켜 보내두고, 일곱 형제는 서천꽃밭에 올라가 황세곤간을 달래어 도환생꽃을 타다가 오동나라 주천강 연못에 가서,

“명천 같은 하늘님아, 주천강 연못이나 마르게 하여 주십시오. 어머님 신체나 찾으리다.”

주천강 연못이 삽시에 잦아지니, 어머님 죽은 뼈는 고스란히 있으므로 뼈는 순서대로 모아 놓아 도환생꽃을 놓고 금부채로 때리니 감태 같은 머리를 깎으면서.

“아이고, 봄잠이라 늦게 잤구나.”

어머님이 인간 세상에 살아났구나.

“어머님이 누웠던 자리인들 내버리랴.”

흙을 차례차례 모아 놓고 여섯 형제는 돌아가면서 손주먹으로 한번씩 찍으니 여섯 구멍이 터지고, 녹대생인이 화를 발각 내면서 발 뒤꿈치로 한번을 찍으니 가운데 구멍이 터집니다. 그때에 낸 법으로 시루 구멍은 일곱개가 되었습니다.

어머님을 살려내고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님은 춘하추동 사시절을 물에만 살려고 하니 몸인들 안 시립니까? 어머님은 하루 종일 삼세번 더운 불을 쪼이면서 조왕할머니로 앓아서 얻어먹도록 하십시오.”

어머니는 조왕할머니로 들어서게 하고,

“아버님은 정낭에 걸려 죽었으니 올래 주목 정쌀지신으로 들어서고, 큰형님은 동방청대장군으로 들어서고, 둘째형님은 서방백대장군으로 들어서고, 셋째 형님은 남방적대장군으로 들어서고, 넷째 형님은 북의 흑대장군으로 들어서고, 다섯째 형님은 중앙황대장군으로 들어서고, 여섯째 형님은 뒷문전으로 들어서십시오.”

녹디생인은 일문전으로 들어섭니다.

그 때에 낸 법으로 삼명절 기일제사 때 문전제를 지내고 나면 웃제반은 지붕 위에 올리고, 알제반은 어머니인 조왕할머니에게 올립니다.

노일제데귀일이 딸은 변소에 가서 죽었으니, 측도부인 변소신으로 마련하고, 그때 낸 법으로 변소와 부엌이 마주 서면 좋지 못하는 법이어서 부엌의 물건은 변소에 못 가져가고 변소의 것은 부엌에 못 가져가는 법입니다.

헤어 나가도 문전 헤어 들어와도 문전, 일문전 본풀이가 되옵니다.